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군산시, 특화된 교육환경 구축... 가족정주에 매력있는 정주시 구축 3년간 90억원 이상 국비 지원, 돌봄-공교육강화-지역산업연계 인재양성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정주까지 지원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시는 3년간 90억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으며, 지역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은 그동안 군산시에서 공들여 준비해 온 결과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최우선 가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삼아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실시간 질문방을 갖춘

공공학습플랫폼 '공부의명수' 구축 및 운영,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자기신장장학금', 도내 최초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등 혁신적인 교육과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오며 교육발전특구로의 디딤돌을 놓았다.

시는 군산만의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공모추진단을 운영하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든든한 돌봄, 쟁쟁한 배움, 촘촘한 취업이음, 탄탄한 어울림의 4대 전략을 정하고, 12대 세부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돌봄분야에는 늘봄시설의 다양화, 다채로운 늘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생 방학중 점심지원이 담겼으며 배움 분야에는 대상별 지역예뉬케어, 자율형공립고,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세부과제로 정했다.

취업이음분야로는 진로진학정보 플랫폼인 꿈이음센터 조성과 일반고 직

업교육학급운영을 담아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향했다. 어울림분야에선 다문화위탁교육기관 확대와 다문화도서관, 장애학생 직업체험 인턴십 사업 등이 담겨있다.

시는 특구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군산교육지원청, 지역의 4개 대학, 교장단협의회, 대안학교, 산단협의회, 연구소 등 19개 협력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12개 세부과제가 우리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산교육지원청과 원팀이 되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를 기점으로 군산은 '돌봄에서 정주까지, 가족 정주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특화된 공교육환경, 첨단산업 일자리를 갖춰 가족 정주에 매력있는 양극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최근 교육발전특구지역에 선정된 군산시가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구현'

군산시,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 · 19개 신규사업 발굴

최근 교육발전특구지역에 선정된 군산시가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구현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31일 군산시는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국·소장과 주무 부서는 물론 연관부서까지 총 26개 부서가 참여해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인구정책 중간 점검에서는 달성률 50% 이상 사업이 전체(92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7개(65%)를 기록했다. 아울러 하반기 추진되거나 완료되는 사업은 15개(16%), 50% 미만인 사업은 17개(19%)로 비교적 원활하게 정책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상황을 살핀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부서별 정책 진행에 대한 상호 점검

및 제안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정책의 보완 방향성 확인 및 향후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인구정책 위원회, 시민 TF의 제안을 반영한 2025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기준으로 추진 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사업은 △육아종합포털 '키움의 명수' 운영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급아 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귀농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 총 19개 사업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무더위 피해 최소화" 익산시, 폭염 안전관리 강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기간... 특보 발효 시 폭염 상황 관리 특별팀 가동 재난 안전 도우미, 독거노인 등 이웃 살피...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개방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 위해 정류장 등 주요 지점에 얼음·냉수 등 비치

익산시가 '폭염 상황 관리 특별팀(ITF)'을 가동하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나섰다.

익산시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폭염 재난 위기 경보는 지난 22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시민 안전과 복지정책과, 경로당에 인과,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 관리 특별팀을 신속하게 가동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에 취약한 이웃을 돕는 '재난 안전 도우미'가 큰 역할

을 한다. 재난 안전 도우미는 이·통장과 생활지원사, 지역 자율 방재단 등 주민을 잘 아는 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독거노인이나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또 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403개 경로당을 상시 개방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무더위 쉼터 시간을 연장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냉방비를 2개월 간 월 1만 원씩 인상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 대책도 실시한다. 야외 근무자들에게 모자, 냉각 티셔츠, 쿨토시 등 용품을 배부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

시는 마을 방송과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에 따른 행동 요령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 위 살수차를 본격 운행해 도시에 열기가 갇히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정류장에 얼음과 냉수를 비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올 여름 무더위는 평년과 다르게 길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키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힘입어 예방적 복구 박차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 작업에도 힘이 실린다.

익산시는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29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공공 시설 209억4,000만원과 사유 시설 87억7,000만원을 합한 규모다.

앞선 25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기준 피해 규모를 넘기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현황 집계와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항구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적 복구 작업에도 힘이 실린다.

익산시는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29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공공 시설 209억4,000만원과 사유 시설 87억7,000만원을 합한 규모다.

앞선 25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기준 피해 규모를 넘기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현황 집계와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항구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감면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